

2019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

군위 인각사, 제730주기 다례재도

군위 인각사(주지 정화)는 8월 8일 경내 국사전 앞마당에서 보각국사 일연선사 제730주기 다례재 및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를 개최했다.

주지 정화 스님은 "한나라, 한민족에게 있어서 문화란 국가 또는 민족이 수천 년을 지내면서 형성된 무형의 자산이며 전통"이라며 "우리 민족 문화 본류가 살아 도도히 흐르는 책속의 삼국유사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의 내용을 책 밖으로 꺼내 완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의 자산이며 이 시대에 나아갈 과제"라고 인사했다.

다례재는 식전공연에 이어 육법공양, 일연선사연보, 종사영반, 추모사 법어, 추모곡 순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 일연 삼국유사 학술문학제 논문발표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식에서는 김은경 교수(영남대 국문학과), 이대형 조교수(동국대 불교학술원), 정성준 교수(위덕대 불교문화과), 최응천 동국대 박물관장이 상을 받았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학술원 기금 1천만원 쾌척

홍윤식 명예교수, 불자대상 상금 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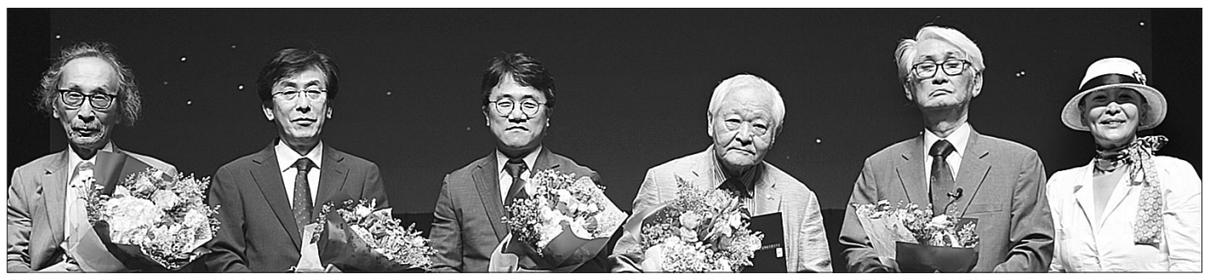
평생을 불교민속학 발전에 힘써온 원로학자가 동국대에 불교학 발전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쾌척했다.

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는 8월 13일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예방하고 '불교학술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원로학자의 기부는 지난 5월 조계종 불자대상 수상 시 받은 상금을 동국대와 불교연구를 위해 쾌척한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날 발전기금을 전달받은 이사장 법산 스님은 "은퇴한 학자에게는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면서 "한평생 학문발전과 후학양성에 힘쓰고도 학교를 위해 마음을 써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홍윤식 명예교수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불자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며 "부처님과 재직했던 동국대에 보답하는 마음에서 불교학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기부의 뜻을 밝혔다.

신성민 기자



만해축전추진위원회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 중앙응급의료센터 정기현 원장 · 문성우 센터장, 임영웅 연극 연출가, 김우창 명예교수. 사진제공=동국대

"한일병탄 무효" 와다 교수 제23회 만해대상 평화상 수상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12일 강원도 인제서 시상
"韓日 신뢰로 살아가야" 소감
중앙의료원 응급센터 실천대상
문예 임영웅 · 김우창 공동 수상

한일병탄은 무효임을 주장해 온 일본 대표 진보 지식인 와다 하루키(和田 春樹) 도쿄대 명예교수가 제23회 만해대상 평화대상을 수상했다.

만해축전추진위원회(위원장 종호 · 동국대 기획부총장)는 8월 12일 강원도 인제군 하늘내린센터에서 제23회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만해평화대상은 한일 간 골이 깊은 식민지배와 화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일본의 대표적 진보지식인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선정 · 시상됐다.

올해 설연휴 윤한덕 前 센터장(1968~2019)의 갑작스런 순직으로 그 존재 가치가 조명됐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정기현 원장 · 문성우 센터장)가 만해실천대상을 받았으며, 만해문예대상에는 연극 연출가 임영웅 씨와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 중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인사는 단연 평화대상 수상자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였다. 그는 일본의 대표 진보 지식인으로,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10년 5월 병합조약 원천 무효를 골자로 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을 주도했다.

만해평화대상을 수상한 와다 하루키 명예교수는 "전쟁 후 평화시대를 살아온 사람으로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반성하기를 주장하며 살아왔다"며 "한일 양국은 상호 신뢰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마지막까지 같은 길을 걸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만해실천대상 수상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이다. 故윤한덕 센터장을 떠올리게 된다"면서 "전국 의료 현장의 모든 의료진들 및 소방대원들과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만해문예대상 수상자인 임영웅 연극 연출가는 "문화예술에 몸담았던 지난날을 되돌아볼 계기가 됐으며 몸이 불편한데 소중한 격려가 됐다"면서 상금 전액을 연극인 복지재단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이어 문예대상 공동 수상자인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는 "만해 한용운 선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다.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축사에서 "만해 선사는 우리나라 최대의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의 제1회 졸업생으로서 평생을 조국의 자유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헌신하셨던 선지식"이라며 "오늘 자리는 선사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모셨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승가의 정진에 감사함 담아"

전주불교연합회 완주 위봉사서
제3회 우란분절 공승재 봉행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가 우란분절을 앞두고 '제3회 전주불교연합회 우란분절 공승재'를 봉행했다.

8월 10일 완주 위봉사(주지 법중) 위봉선원에서 열린 이번 공승재에서 전주불교연합회원들은 수행과 기도를 통해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중생의 행복을 기원해준 승가에 대한 공경과 보답이라는 우란분절의 의미를 되살려 지극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다.

지장전에서 봉행된 공승재는 삼귀의, 반야심경, 공승, 법문, 사홍서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불교청년회 전북지구 김성규 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공승재에는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을 비롯해 위봉선원 입승 선영 스님, 지객 성진 스님 등 스님들과 전주룸비니불교산악회 안준아 회장, 전북불교네트워크 오종근 대표, 자연음식문화원 유정희 원장, 전주 우리는선우 김진철 회장 등 전주불교네트워크 소속 회원 60여 명이 동참했다.


완주 위봉사 위봉선원에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린 전주불교연합회 회원들.

위봉사 주지 법중 스님은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준비한 공양물이 헛되지 않게 더욱 열심히 용맹정진해서 부처님의 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위봉 선원으로 자리를 옮긴 참가자들은 법문을 듣고 20분간 입승 선영 스님의 지도아래 화두를 들고 참선했다.

입승 선영 스님은 참선에 앞서 "공양의 공덕으로 부처님 법 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정진하면 견성성불 할 것"이라며 "화두를 들고 선방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돌아보며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승재에 동참한 이정미 씨는 "오늘의 공승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가는 스님들의 구도행에 대한 열정과 용맹정진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며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선방에서 앉아 참선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기회였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명나눔, 8월 치료비 전달

8월 7일 법인사무실서 정유희 씨에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7일 법인 사무실에서 8월 치료비 지원 선정환자 정유희(가명, 여, 44세) 씨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최상균 생명나눔 사무총장이 심인혜 H+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치료비를 전달했으며 "어려운 환자들을 발굴해 환자치료비 심의에 추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신나는 사찰 어린이캠프"

수원 보현선원, 제2회 어린이 새싹 여름캠프



수원 보현선원(회주 성관)은 8월 1~3일까지 '연꽃세상 로터스월드와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새싹 여름캠프'를 개최했다. 5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한 여름캠프는 성관스님과 함께하는 참선명상을 비롯해 발우공양 체험, 예불, 연등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 불교 ·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선원 내 야외 워터파크를 설치해 물놀이 시간을 보냈다.

신성민 기자

"법사학인 신심 · 자질 높여"

한국불교법사대학 제28기 하계수련회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8월 3~4일 경기도 안성 영평사에서 법사학인들의 신심고양과 자질향상을 위해 제28기 법사학인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법사대학에 재학 중인 법사과정 학인들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총 50명이 동참해 정진했다. 또한 학사규정과 학업과정에 따라 법사교육에 준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수련교육도 실시됐다.

윤호섭 기자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 공고

입학문의 www.dongbang.org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우)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Tel 02)745-2030 010-7236-0900 Fax 02)739-3470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 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편입학 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 · 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모집학과 불교학과(2년제 정규반) **모집인원** 00명

교육비 원서접수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계좌번호 : 농협 301-0212-6468-11 한국불교태고종 동방대불원

특전
- 승려가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 동방불교대학 졸업후 사교/대교(2년) 졸업 시 중덕 법계 품수

전형일정

1.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7월 15일 ~ 8월 23일
   - 인터넷 교부 : 동방불교대학 홈페이지 - www.dongbang.org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사간동 112)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 서류심사 : 2019년 8월 26일(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합격자 발표** : 2019년 8월 27일(화) | 개별통지 및 본교 홈페이지

접수서류 ※ 우편접수 및 방문제출

1.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기본증명서 1부
4.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5. 승적 증명서 1부(해당자)
6.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7. 사진 :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